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
선지 근거 및 해설(비문학편)

작성자 김말국(2024. 6. 5 16:37)

드디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입니다.
시험은 이전과 비슷한 변별력으로, 언매 1등급 컷 85점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.
1등급을 원하는 두 학생이 있습니다.
학생 A는 시간 안에 45문제를 풀었으나 그 중 10문제는 50%의 확신으로 풀었습니다.
학생 B는 시간이 모자라 1지문을 날려 5문제를 못 풀었으나 나머지는 100%의 확신으로 맞췄습니다.
국어 시험이 끝나고, 두 학생의 점수가 같음에도,
A는 1등급을 맞지 못할까 불안해하지만
B는 1등급을 넘겼음을 확신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합니다.
하루종일 진행되는 여정에서 첫 과목이 주는 확신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.
물론 그것보다도, 본질적인 우리의 목적은 결국 원하는 성적을 편차 없이 받는 것이겠죠.
푼 문제에 대한 정확도를 100%로 만들고, 이후 숙련도를 올려 푸는 속도를 올리는 것이
원하는 성적을 언제 어디서든 고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이며,
<18학년도 전북대 의예과 정시 합격, 19학년도 중앙대 의학부 정시 합격, 21학년도 연세대 의예과 정시 합격>까지
3번의 입시에서 국어만큼은 항상 만점이었던 이유입니다.

정부의 킬러 문항 삭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능 국어는 여전히 강한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그 비결은 어디서 올까요?
겉보기에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지문과 <보기>를 없애고,
길이는 짧고 소재는 간단한데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어려운, 생각을 한참 해야 하는 지문과
꼼꼼히 해체하고 변환해 보지 않으면
근거를 잡아 o/x를 하기조차 어려운 선지들을 넣었기 때문이죠.
평가원 교수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(반어법 아닙니다)

개별로 적으면 양이 너무 많아 자료 읽을 때 공통적인 사고의 흐름만 말씀드립니다.
아래에는 선지의 근거만 적어 놓았지만, 선행되어야 할 것은
선지를 읽고 '선지에 적힌 내용이 지문의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연결하는 것' 입니다.
선지는 o/x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아래에는 각 명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 내용 혹은 해설을 적어 두었습니다.
즉, 선지를 읽고 o/x를 판단해야 하는 명제를 정리한 후
해당 명제가 관련된 지문 내용을 생각하고,
기억난다면 바로 판단, 기억이 안 난다면 지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지문을 잘 읽었으면 기억이 많이 나겠지만 안 난다고 해서 확인 없이 풀 수는 없습니다.
어쨌든 중요한 건 문제를 맞히는 거니까요.
지문을 잘 읽는 방법은 다른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
<자료 보는 법>

1. 시험지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.
2. 파란색은 근거가 되는 지문 내용입니다.
3. 초록색은 근거가 되는 <보기> 내용입니다.
4. 파란색 앞 [숫자-]는 해당 내용이 있는 문단입니다.
5. ‘ㅇㅇㅇ~ ㅁㅁㅁ’라고 쓴 곳은 ‘ㅇㅇㅇ’부터 ‘ㅁㅁㅁ’까지 전부 근거라는 말입니다.
6. 지문 이해 없이 이 근거만 찾는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

지문 이해가 됐다는 가정 하에, 선지를 보자마자
o/x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.
지문 다 읽었는데 문제가 안 풀릴 때,
애매하게 답을 고르고 넘어간 선지들을 점검할 때,
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1번

1) 2-‘글을 선정할 때에는~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’
2) 3-‘연결하기란~’, 4-‘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~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’
3) 1-‘궁금증 해소나~ 목적으로’, 4-‘읽은 글의 구조와는 다른~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’
4) 4-‘선택하기란~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’
5) 1-‘한 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, 여러 글을 읽으며’

2번

1) 2-‘믿을만한 글인지와~ 관련이 있는 글인지~’ 이후 신뢰성평가와 관련성평가가 차례대로 나오므로 ‘관련이 있는 글인지~’ 는 관련성 평가를 가리킴.
2) 2-‘신뢰성 평가는~ 생산 기관’
3) 2-‘신뢰성 평가는~ 출판 시기’
4) 2문단에서 각각 중요하다고 말함
5) 2-‘관련성 평가는~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’, ‘신뢰성 평가는~ 글의 저자’

3번

#보기 분석(선지 보기 전에 먼저 해야 오답선지에 호도당하지 않습니다. 비문학, 문학, 언어, 매체도 마찬가지)
-ⓐⓑ<동물은 예술가>와 <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>를 읽고 정보 얻음: 여러 글을 읽으며 ‘선택하기’
-ⓒ추출한 정보를 연결: ‘연결하기’
-ⓓ인과관계 구조로 정리: ‘조직하기’
-ⓔ정보 추출: ‘선택하기’

1) ⓐ는 선택하기
2) ⓑ는 선택하기
3) ⓒ는 연결하기
4) ⓓ는 조직하기
5) ⓔ는 선택하기

4번

1) 2-'과두제적 경영은~', 2-'도움을 주기도 한다', 3-'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', 4-'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'
2) 원리가 1개밖에 없음.
3) 유형이 1개뿐.
4) 가설이 없음.
5) 문제상황과 해결책은 있으나 상반된 입장이 없음.

5번

1) 3-'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', 2-'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'
2) 3-'소수의 경영자로~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', '안정적 경영권이 확보'
3) 3-'안정적 경영권이~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'
4) 4-'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'
5) 3-'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~ 도움을 주기도 한다', 4-'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', '기업 운영에 중대한~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'

6번

*추론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지문 내용 그대로 근거 활용이 불가하며,
근거가 되는 내용을 해석하여 그 다음 내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물론 일부 선지는 내용일치만 보는것도 있습니다.

1) 5-'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~ 미래에 매수~ 스톡옵션의 권리'
->계약할때 싼가격으로 해놓고, 나중에 그것보다 비싸졌을때 나만 싼가격으로 산다음에 바로 다시 팔면 이득
->미리 정해 놓은것보다 하락하면 그냥 안사면 됨. 그럼 손실 안입음. 비싸졌을때 사면 됨.
2) 5-'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', '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'
->둘다 미래 주식가치와 관련있음
3) 6-'기업의 주식 가치에~ 정보 제공을~ 경영 공시 제도'
4) 6-'외부 인사를 이사로~ 사외 이사제도는~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 억제'
->폐쇄적 경영 억제하니까 개방적
5) 6-'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', 3-'과두제적 경영은~ 정보를 독점'

7번

#보기 분석
-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: '공동체적 경영'
-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: '과두제적 경영'
-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 파악~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
: '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'이 없음
-A에서 경영진의 구성원 변동시키지 않고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: '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'
-B에서 예전처럼 회사 운영: '공동체적 경영'

1) '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'이 없음
2) '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'됨
3) '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'됨
4)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 최소화=수직적, B는 수평적인 공동체적 경영 원함
5)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=소수 경영자가 권한과 정보 독점
(3-'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~ 이런 체제는~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')
X는 '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'이 없음

8번

1) 2-'단위체인 작은 분자가~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'

2) 3-'에틸렌은~ 탄소 원자가 이중 결합~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'

*읽으면서 지문 내용 따라서 분자식을 그려놓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수있겠네요.

분자 모양을 알고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저도 몰랐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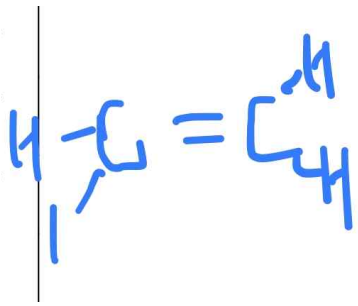
배경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건 맞으나 평가원은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풀수있는건 절대 안냅니다.

예외는 기출 지문에 써있는 배경지식+고등학교 공통과정 배경지식

3) 1-'플라스틱은~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'

4) 4-'과산화물 개시제는~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'

5) 4-'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'



*실제 시험볼때 그려둔 그림.

9번

*이해를 묻고 있습니다. 추론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. 다만 저 근거를 찾았다고 풀수 있는건 아닙니다.

지문을 읽을때 사슬 생성 과정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됐어야 합니다.

#사슬 생성 과정 정리(지문 읽을때 하는것)

: 개시제가 이중결합중 하나 끊어서 탄소 하나에 붙

->나머지 탄소는 결합 끊어지고 아무도 안붙어서 전자 홀로 남은채로 불안정함

->다른 에틸렌의 탄소를 개시제처럼 결합 끊어서 뺏어버림

->또 불안정한 탄소 발생하며 사슬 형성

->반복하다가 다른 사슬의 불안정한 탄소 만나면 서로 채워주면서 반응 종결

1) 4-'다른 쪽 탄소 원자는~ 홀로 남은 전자', '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아여 안정'

->에틸렌 한쪽이 불안정해져서 거기에 계속 에틸렌이 붙고, 붙은 반대쪽이 불안정해지는 식으로 반복.

두개의 사슬에서 각각 불안정한 한쪽 끝이 만나면 안정. 즉 사슬 한쪽끝이 불안정

2) 4-'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'

->에틸렌 가운데 이중 결합중 하나가 끊어지고 단일 결합이 되며

불안정해진 이 원자가 다른 에틸렌의 이중결합을 또 끊는 과정이 반복. 즉 사슬의 에틸렌들은 단일결합하는 상태.

3) 4-'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~ 계속 생성된다'

4) 4-'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, 홀로 남은 전자를~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~ 계속 생성'

5) 4-'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~ 단일 결합한다'

10번

#보기 분석

-㉮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: ‘결정 영역이 적다’=유연성 높다, 충격에 강하다, 가공성이 크다, 투명하다

-㉯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: ‘결정 영역이 많다’=밀도가 높다, 단단하다, 화학물질에 민감성이 적다, 열에 잘 변형되지 않는다

(나머지는 반대.. 그러니까 ㉯는 유연성낮다.. 충격약하다.. 등등)

1) 유연하다=결정 적다=㉮

2) 잘보인다=투명하다=결정 적다=㉮

3) 화학물질 버틴다=결정많다=㉯

4) 밀도높다=결정많다=㉯

5) 열에잘견딘다=결정많다=㉯

11번

#생활에서 ⓐ 접할 수 있다->생활에서 볼 수 있다->‘보다’ 넣어보기 (조사까지 유지하면서 넣어야 이상한거 더 잘보임)

1) 요즘 신도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보고 있다.. 이상함

2) 그는 자신의 수상 소식을 오늘에야 보게 되었다.. 이상함

3) 나는 교과서에서 본 시를 모두 외웠다.. ㄱㅊ

4)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보고 있다.. 이상함

5) 우리 집은 공원을 보고 있다.. 이상함

12번

1) (가)3-‘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~ 도덕 문장이 아니고,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’
2) (가)3-‘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’, ‘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’
3) (가)2-‘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, 술어인 A가 주어인~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’
4) (가)3-‘도덕 용어는~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’
->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=사실 기술=기술적 용법만 해당
5) (가)3-‘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~ 도덕 문장이 아니고,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’
(가)2-‘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~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’

13번

#[A] 정리(역시 지문읽을때 하는것)
-‘표절은 나쁘다’: ‘표절’이라는 대상에 ‘나쁨’이라는 속성 부여
-대상에 속성 부여하는 내용의 문장: 판단적 문장
-‘귤은 맛있다’ 역시 판단적 문장
-그러나 조건문에 들어갈 경우, ‘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’ 라는 문장의 화자는
어떠한 경우에 귤이 비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, 귤이 맛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.
-즉 ‘귤은 맛있다’가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.
-그러나 발현하지 못할 뿐, 조건문 속 ‘귤은 맛있다’는 여전히 판단적 본질을 갖고 있음.
-지문 마지막 “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” 에서 “그 문장” 이란
조건문 전체가 아닌 조건문 속에 쓰일 때의 ‘귤은 맛있다’를 이르는 것

1) [A]-‘‘귤은 맛있다’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’
2) [A]-‘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’, ‘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’
3) [A]-‘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’
->이때 ‘그 문장 자체’는 조건문 속에 쓰인 ‘귤을 맛있다’를 의미함.
4) [A]-‘‘표절은 나쁘다’라는 문장은~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’
5) [A]-‘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’

14번

1) (가)3-‘도덕 문장은~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~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’,
(가)1-‘전통적의 윤리학의~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’
2) (가)3-‘그의 주장대로라면~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’
3) (가)2-‘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’,
‘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~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’
4) (나)1-‘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, 전건 긍정식임에도~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’,
‘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~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’
5) (나)2-‘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’

15번

1) (나)1-'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~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'
2) (나)1-'감정을 표현했다면,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'
3) (나)1-'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, 전건 긍정식임에도~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'
4) (나)1-'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~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.'
5) (나)2-'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~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'

16번

#보기 분석
-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'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'라는 조건문: '자선은 옳다.'는 도덕 문장
-'자선은 옳다.'는~ 태도를 표현한다: 도덕 문장은 태도를 표현
-도덕 문장을 포함한 조건문: <도덕 문장이 나타내는 태도>에 대한 태도를 표현
-전건 긍정식에서 사용된 기호로 설명하자면,
'P이다'라는 문장이 나타는 태도&'P이면 Q이다'라는 문장이 나타내는 태도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라면,
'Q이다'라는 태도도 당연히 지녀야 한다는 뜻.

1) 도덕 문장은 태도를 표현한다는 주장
<보기>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 =조건문 속 도덕 문장은 태도를 표현하므로 상충하지 않음
2)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=문장의 참/거짓 판단 가능 =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않음
∵ (가)-감정을 표현한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으므로 참/거짓 판단 불가능
<보기>는 문장이 태도를 표현하므로 상충
3)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=전통적인 윤리학 =도덕 문장의 객관적 옳고 그름
<보기>는 문장이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므로 상충
4) '귤은 맛있다'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=문장이 감정과 태도를 표현
<보기>도 문장이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므로 상충하지 않음
5) '도둑질은 나쁘다'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 =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면 참/거짓 판단 불가
<보기>도 태도에는 참/거짓이 없다고 하므로 상충하지 않음

17번

1) 객관적 근거를 수색하는 것이다.. 이상함
2)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.. ㄱㅊ
3) 에이어는~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~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파했다.. 뜻이 바뀜
4) 타인의 감정을 발산하는.. 이상함
5)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공개하여.. 뜻이 바뀜